한국농어촌공사 |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|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자원관리처 수자원기획부 박진현부장(061-338-5521) / 제공일: 2021. 6. 9 (총 2매)

농어촌공사 제51회 중앙운영대의원회 개최

○ 농어촌 ESG, 농지은행제도 개선 등 공사 업무 관련 농업인 현장 목소리 수렴

□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9일 나주 본사 무궁화1실에서 「제51회 중앙운영대의원회」를 개최하고, 공사 및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.

○ 중앙운영대의원회는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운영되어 왔다.

○ 공사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 각 지역 현안과 농업인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공사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□ 이날 회의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, 한국화훼단체협의회 임영호 회장 등 중앙운영대의원 14명과 공사 임직원이 참석했다.

○ 회의는 △2021년 공사 주요 업무현황 △KRC농어촌 ESG2030 △농지은행 제도개선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설명 △농어촌 발전을 위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.

○ 특히, 참석자들은 “기후변화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분야의 발 빠른 전환과 대처가 필요하다”고 강조하고 “농어촌 전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사가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”을 주문했다.

□ 김인식 사장은 “지난 3월 ESG경영선포식을 시작으로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업분야 ESG를 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”며 “이를 위해 중앙정책과 지역농정의 요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앙운영대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